

국방장관주재 방산업체 대표 초청 리셉션

방산업계 노고 치하 및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방위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산업체장 및 방산관련인사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장관 주재 리셉션이 지난 12월 12일 국방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리셉션에는 국방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천용택 국방위원장, 이연숙 국방위원, 重 수뇌부와 정부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국방과학 연구개발 장려금을 시상하였는데 이는 방산물자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방산분야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한 방산 물자 및 핵심기술·부품을 개발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7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1회에 걸쳐 274개 과제에 42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장관 격려사

존경하는 천용택 국방위원장님, 방산업체 대표 및 방산

관계관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시느라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한해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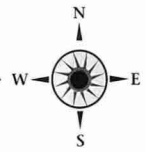
아울러, 그간 우수한 방산물자 및 핵심기술 개발로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민족사에 더할 나위 없이 뜻깊고 역사적인 한해였으며, 우리 군으로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힘으로 뒷받침해 오는데 매우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업계도, 금년 한해는 방위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방산업계의 앞날은 희망





과 낙관보다는 당면한 많은 도전과 과제들로 그리 순탄치 않은 삶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듯이, 우리 군은 남북관계 발전이 진전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면,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존 위협보다는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주안을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은 첨단 전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은 현존위협에 대비한 재래 전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용한 자원은 미래를 대비한 전력 육성에 과감히 집중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재래식 전력 유지를 위한 수요를 줄이고 내수물량을 격감시킴으로써 재래식 전력 위주의 우리 방산업체에게는 가동률 저하 및 경영난을 부추길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한 수단이 되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방산 육성은 국방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은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지속적

인 가동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방산 여건 속에서 방산업계를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무엇보다도 방산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산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및 방산기술 면에서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구매 잠재력이 큰 제3국들을 주요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방산협력 수준 및 그 중요도에 따라 가장 수출 전망이 좋은 나라들부터 A, B, C 군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군사외교 및 방산 정책을 차등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산 수출 여건을 개선시켜 가기 위해서는 대상국들과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긴요하다는 차원에서, 고위급 상호 방문 및 인적 교류, 훈련 참여 등을 확대해 가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무관들에게도 방산수출 협력 등 국가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우선적인 업무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 연구개발 장려금 시상 내용(방산업체)

| 업 체 명 | 과 제 명 | 수 상 자 | | 수상 등급 |
|------------|--------------------------|-------|------------|-------|
| | | 직 급 | 성 명 | |
| 국방과학연구소 | 어뢰음향 대항체계(TACM) | 책임연구원 | 황경선 외 109명 | 특1 |
| 국방과학연구소 | 30밀리 자주대공포(비호) | 책임연구원 | 박노명 외 154명 | 수 |
| 국방과학연구소 | 예인음탐기 체계(TASS) | 책임연구원 | 노정호 외 118명 | 특1 |
| 국방과학연구소 | 정밀고주파 방탐장치 | 책임연구원 | 임종수 외 21명 | 수 |
| 현대모비스(주) | K1A1 전차개발(성능개량) | 수석연구원 | 유찬웅 외 77명 | 수 |
| 삼성통신CSF(주) | 전술통신체계 성능개량(MSC-500AK) | 부 장 | 홍순목 외 56명 | 우 |
| LG이노텍(주) | 전술용 전자식 전화기(TA-512K) | 책임연구원 | 오동현 외 23명 | 우 |
| (주) 풍 산 | 30밀리 골기퍼탄 | 차 장 | 강인영 외 55명 | 수 |
| | 155밀리 항력감소 이중 목적 고풍탄/연습탄 | 차 장 | 김세환 외 107명 | 수 |
| (주) 한 화 | 2.75인치 다목적 고풍탄/연습탄 | 책임연구원 | 윤경식 외 36명 | 수 |
| | 신관 타이머(KM577A1) 국산화 | 과 장 | 김동엽 외 19명 | 우 |
| 대우통신(주) | 레이더 표시기(SPA-99K) | 선임연구원 | 박윤규 외 49명 | 우 |
| | 레이더 반사기 결합체 | 선임연구원 | 이동호 외 21명 | 우 |
| 한국통신(주) | 신형 폭파기구셋(PDE-150K) | 책임연구원 | 육종필 외 7명 | 우 |



오늘 장관님께서 국사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산업계 대표를 초청하시어 위로 격려와 함께, 방산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연구개발 장려금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업계를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방산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방산업계에 계신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수출 증진을 위한 軍의 지원 노력과 병행하여 방산업체에서도 방산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본인의 기본 생각은 반드시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Win & Win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 이익이 된다면 기술합작은 물론, 우수한 상품을 서로 맞교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동협상 구매, 공동수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 번 거래를 맺으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후속 군수지원 및 기술 교육 등의 신용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썽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오늘의 제반 난관을 극복하고, 방산업계의 새로운 활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회장 답사

존경하는 조성태 국방부 장관님, 국회 국방위원님,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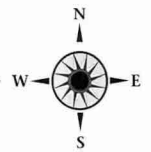
돌이켜 보건대, 금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고 경의선 연결공사가 시행되는 등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이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국방부와 방산업계가 두 축이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력을 위한 군사과학기술 향상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의 수단인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부품국산화에 더욱 정진하는 한편, 방산물자의 수출증대에도 총력을 경주하여 방산물자의 국내 수요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관님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셨고, 방산 관련 각종 제도 및 규정의 개선과 함께 방산물자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신데 대해 방산업계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방산업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장관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재도약하고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 방산정책 심포지엄 열려...

「방위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 주제로



올대 교수의 「방산업체의 적정원가 보상 대책」, 김광열 배재대 교수의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최석철 국방대 교수의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심이택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30년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태동한 우리 방위산업은 그간 방산업체의 각고의 노력 끝에 대부분의 기본 병기를 자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제는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재래식 병기에 대한

국내 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산 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9일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방위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난 1년간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 및 토론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병태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안태식 서

군 수요의 충족 등으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는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투자 사업비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어 방산업체는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발전방향 및 건의 내용이 정부 관련 부서와 軍 및 국민들에게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산학회,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의 방위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한국 방위산업학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방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국의 방위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지난

11월 28일 캐피탈 호텔에서 2000년 하반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황동준 방산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6·15 남북한 정



상회담으로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와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칫 안보의식이 해이해 지고 국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가 낮아지거나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한반도의 안보여건을 고려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의 유지와 미래 전쟁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회 외국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형욱 홍익대 교수의 「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로 좋은가」, 김명대 방진회 이사의 「방위산업 경영 실태 및 정책 방향」, 김종률 국과연 기술연구본부장의 「국방과학기술 기반 구축 방

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론자로 김광열 배재대 교수, 한남성 국방연구원 방산기술팀장, 천길성 Brainchain 회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0년 국방백서 발간

북한에 대한 主敵 개념은 그대로 유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 「2000년 국방백서(한글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국방백서는 우리의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대표적인 책자로서, 1967년 이래 15번째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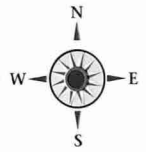
국방백서는 매년 10월 초에 발간하여 왔으나, 지난해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국방백서에 반영하기 위해 2개월 연기하여 12월에 발간하게 되었다.

국방백서의 발간목적은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고 안

보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열린 국방을 구현하며, 국방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제적 신뢰와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2000년 국방백서」는 5부 18장 6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 북한의 정세와 군사위협
- 국방목표, 국방정책기조 등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남북 군사력 비교

1999. 12. 31. 기준

| 구 | | 분 | | 한 | 국 | 북 | 한 |
|----------|-----|------------------|------------------|----------------------|---------------------|-----------------------|--------|
| 병 | 력 | 지상군 | | 56만여명 | 69만여명 | 100만여명 | 117만여명 |
| | | 해군 ¹⁾ | | 6.7만여명 | | 6만여명 | |
| | | 공군 | | 6.3만여명 | | 11만여명 | |
| 주요 전력 | 지상군 | 부대 | 군단 | 11개 | 20개 | | |
| | | | 사단 | 49개 ²⁾ | 67개 ³⁾ | | |
| | | | 여단 ⁴⁾ | 19개 | 78개(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 | |
| | | 장비 | 전차 | 2,360여대 | 3,800여대 | | |
| | | | 장갑차 | 2,400여대 | 2,300여대 | | |
| | | | 야포 ⁵⁾ | 5,180여문 | 12,500여문 | | |
| | 헬기 | | 600여대 | - | | | |
| | 해군 | 수상전투함 | | 160여척 | 430여척 | | |
| | | 지원함 | | 10여척 | 470여척 ⁶⁾ | | |
| | | 잠수함(정) | | 10여척 | 90여척 ⁷⁾ | | |
| 항공기 | | 70여대 | - | | | | |
| 공군 | 전투기 | | 540여대 | 870여대 | | | |
| | 특수기 | | 40여대 | | | | |
| | 지원기 | | 230여대 | 840여대 ⁸⁾ | | | |
| 예비전력(병력) | | | | 304만여명 ⁹⁾ | | 748만여명 ¹⁰⁾ | |

- 주: 1) 해병대를 해군에 포함
 2) 해병대 사단 포함
 3) 미사일 사단(1) 포함
 4)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여단 제외
 5) 야포는 로켓, 유도무기, 다련장, 방사포 포함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7) 잠수정 40여척 포함
 8) 항공기(헬기)는 공군에서 통합 운용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0)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 정책
- 2000년도 국방예산 및 국방투자사업, 국방정보화, 정예 국방인력 육성, 복지 증진, 동원태세 확립 등 국방 현황과 과제
- 국방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병무행정 혁신, 환경친화적 군 관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위한 노력 등이다.
- 또한 부록을 대폭 개선하여 국방 관련 참고자료로서

의 활용가치도 제고시켰다.

「2000년 국방백서」는 총 7,000부를 발간하여 국회, 언론 기관, 행정부처, 도서관, 연구/교육기관, 군 관련기관 및 안보관련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영문판은 외국 군·대사관·도서관 등 해외 및 국내 주요기관에 3,500부를 2001년 3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을 위하여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소문을 게재하는 한편, 전국 주요서점에서 시판(8,000원 예정)한다.